

정진숙의 출판인생

본문중에서

모든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 법이다. 아마 을유문화사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오늘날 까지 건재함은 아마 이 시기의 확고한 목표의식과 철저한 준비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마치 기초가 튼튼한 건물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청정한 정신과 철저한 준비는 그 자체가 생명력을 지니는 것이어서 때론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며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P.96

굳이 나의 능력을 찾는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출판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어려운 출판경영 현실에서도 변함없이 을유문화사 출판의 본령을 지키고자 했던 소신 정도를 덧붙일 수 있을까 싶다. P.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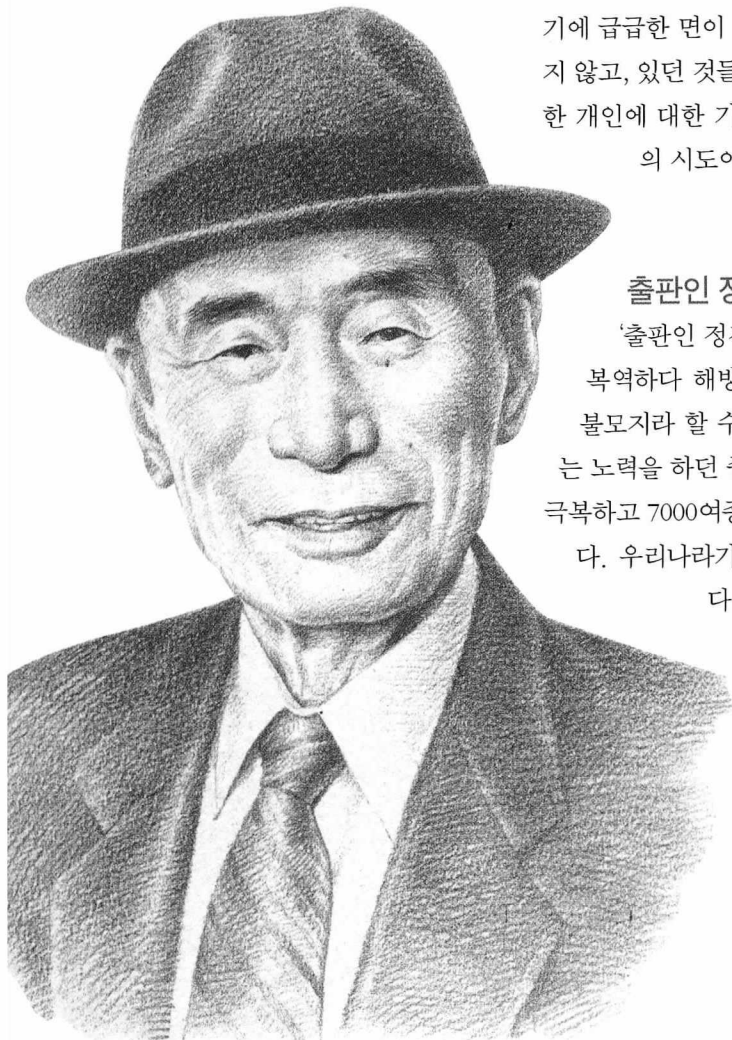
영국의 역사학자 E.H.카는 역사는 항상 역사가에 의해 다시 씌어진다는 점을 밝히면서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계속적인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한 바 있다.

결국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을 반추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다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및 미래는 시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속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과정 중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지난 역사는 오늘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인 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같은 현대사의 상흔과 혼란은 상당부분 개인의 역사, 곧 개인에 대한 기록을 갖지 못하게 작용한 경향이 있다.

시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사의 굴곡이 드리워놓은 어두운 그림자는 개인에 대한 기록과 관심을 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폐시키기에 급급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 결과 해방 이후 이렇다 할 개인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있던 것들마저 상당 부분 유실된 것이 아닐까? '출판인 정진숙'은 이러한 개인에 대한 기록 부재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공백을 채워주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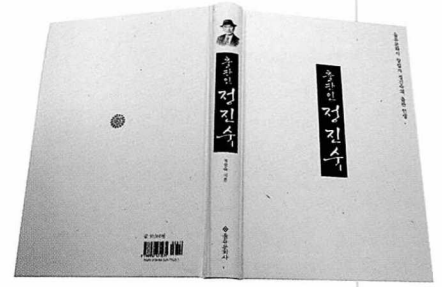
출판인 정진숙

'출판인 정진숙'은 1912년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복역하다 해방을 맞고, 해방정국에서 '건국사업이 곧 출판사업'임을 믿고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출판계에 투신하여 잊혀져 있던 우리말과 글을 되살리는 노력을 하던 중 한국전쟁을 만나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다시 일어나 난국을 극복하고 7000여종에 달하는 양서를 출간해 온 노 출판인에 대한 진지한 기록이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광복 이튿날 34세였던 정진숙은 다니던 동일은행(조흥은행의 전신)에 사표를 낸다. 바뀐 세상에서 보람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불령선인으로 낙인찍혀 용산 헌병대에 잡혀가 8개월 가까이 수원형무소에서 고생한 바도 있어 새로운 시작을 내딛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뜻 해야 할 일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당시



책을 펴내는 것은 어쩌면 자녀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장이 지나칠 정도로 매사 간여를 하게 되면 편집진의 독창성을 훼손할 수 있다. 마치 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받고 자란 아이가 독립심이 약한 마마보이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편집은 편집, 영업은 영업대로 스스로 판단해 최선을 구가하도록 하는 경영방침을 고수했다. 을유문화사 창립 당시의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늘 스스로를 닦아세우곤 했던 것이다. 책의 판매동향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했다. 많이 팔리는 책보다 좋은 책을 펴내야 한다는 신념에서 출판을 해왔던 것 같다. P.247



고려문화사에서 편집일을 하던 조풍연, 아동문학가 윤석중, 은행에서 일하던 민병도 등이 출판을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생소하기도 하고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집안어른인 위당 정인보 선생을 만나 출판이야말로 민족 문화의 밑거름이라는 말을 듣고 출판계에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을유문화사는 그렇게 해서 출범하였다. ‘원고를 엄선하여 민족문화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정할 것을 다짐하고, ‘가정글씨체첩’을 필두로 활발한 출판을 시작하여 가난과 신고를 무릅쓰고 한 권 한 권 답을 쌓아 60년 넘게 처음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려움속에서도 7000여종의 책을 펴낸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지, 책으로 내가 살고 우리 국민 전체가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였다. 그렇기에 이해타산보다는 영구히 빛바래지 않고 남을 책을 만들어야 했다. 출판은 기업 이상의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출판을 해서는 안된다. 책 한권을 낼 때 쏟아야 하는 노력과 정성을 감안하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책이라는 상품은 너무도 비효율적이다. 출판인에게 분명한 사명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진숙 회장은 한국전쟁의 와중에 동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홀로남아 아무것도 온전한 것이 없는 폐허에서 이 원칙들을 고수하며 ‘한국출판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묵묵히 해 왔다. 빼앗긴 우리말과 글을 살린 ‘큰사전’, 본격적인 통사를 지향한 ‘한국사’, 문고본 시대를 연 ‘을유문고’, 동서양의 명작을 한글로 완역한 ‘세계문학전

집’, 대형기획물의 전범을 보여준 ‘한국문화총서’, ‘세계사상교양전집’ 등은 이러한 출판철학에 다름아니다.

이 책에는 출판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경영 일선의 어려움과 당시의 열악했던 출판 상황에서부터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금고의 출범, 교보문고 등 서점탄생에 얽힌 비화들이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소개되고 있어 기록물로서의 의미도 담고 있다.

“출판은 어느때나 어느 민족에게나 사회와 문화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도구이며, 책은 문화의 창조와 민족적, 역사적 계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견인차”라는 신념을 고수하는 출판인이 아쉬운 지금 진정한 출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출판인 정진숙’은 하나의 전범으로 여길 만하다.

지은이 정진숙은

1912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1934년 휘문고등보통학교를 거쳐 보성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였다. 동일은행(조흥은행 전신)에 다니던 중 해방이 되자 위당 정인보 선생의 권유로 민병도, 윤석중, 조풍연과 함께 을유문화사를 창립하였다. 1946년 ‘가정글씨체첩’을 시작으로 1947년부터 1957년에 걸쳐 ‘큰사전’을 편찬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사’, ‘세계문학전집’, ‘을유문고’ 등 지금까지 약 7000종의 양서를 출간하며 한국출판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1952년부터 을유문화사 사장으로 일하는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과 한국출판금고 이사장, 한국박물관회 회장을 지냈다. 출판문화발전에 대한 공헌으로 1957년 문교부장관 표창장, 1968년 대통령 표창장, 1970년 국민훈장 동백장, 1997년 금관문화훈장, 2007년 유일한 상 등을 수상하였다. ☞